

# 대우 창업 50주년 가족사 기념주간 행사안내

## ■ 행사취지

- 50주년을 맞이하여 상호 업무연관성 높았던 가족사 부문별 모임기회 제공
- 대우가 걸어온 발자취를 둘러보고 미래 발전을 위한 Consensus 형성

## ■ 행사개요

- 행사기간 : 2017. 3. 23(목) ~ 4. 16(일) → 총 22일 운영
- 행사장소 : 아트선재센터 (종로구 소격동 소재) → 좌석규모 250석
- 참석대상 : 대우 임·직원 및 가족
- 주요 행사내용
  - 대우 다큐멘터리 영상물 시청
  - 대우 50년 기념전(3층)
  - 기획 전시물 관람(1층, 2층)
- 운영 방식
  - 가족사별 참석 일자 지정 운영(일부 가족사는 부문별로 분할 지정)
  - 자유관람일에는 지정일에 참석 못하는 대우임직원 및 가족 관람 가능
  - ※아트선재센터 운영시간 : 오전 11시 ~ 오후 7시
  - ※다큐멘터리 상영시간 : PM 5:00~6:20(80분)

## 평일 행사시간 운영계획

시간	배정시간	행사내용	비 고
15:30		장소 집결	아트선재센터 한옥
15:30~16:00	30분	상호 인사 및 관람권 배부	아트선재센터 한옥
16:00~17:00	1시간	대우가족 전시물 관람	3F 전시장
17:00~18:20	80분	Documentary 상영	B1 공연장
18:30~		전시물 추가 관람	

- ※ 주말 다큐멘터리 상영시간(2회) : 오후 3시, 오후 5시
- ※ 전시장 입장권은 대우가족에 한하여 무상 제공(가족 동반시도 제공)
- ※ 1층·2층 전시작품 관람 가능
  - 1층 : 네덜란드 작가 '멜빈 모티'의 《코스미즘(Cosmism)》
  - 2층 : '이주요/정지현'의 《도운 브레이크스 서울(Dawn Breaks Seoul)》

## 행사일자별 초청 회사 및 조직

일자	회사명(부문)	세부 조직	비 고
3. 23 (목)			자유관람
3. 24 (금)	대우전자	관리·영업·서비스 부문	
3. 25 (토)	대우자동차	공장 : 부평,군산,창원,보령	
3. 26 (일)			자유관람
3. 27 (월)			휴관
3. 28 (화)	대우건설 외	관리·토목·SOC·연구소 부문/대우엔지니어링/ 신한/신흥기공/대창기업/서울건축	
3. 29 (수)	대우중공업	전체	
3. 30 (목)	금융 부문	증권 전체/경제연구소/선물/투자금융/투자자문/ 다이너스클럽코리아/창업투자/삼신생명	
3. 31 (금)	대우무역	철강·금속·비철·자동차부품·산업기계·플랜트 부문	
4. 1 (토)	대우조선 외	조선 전체/신아조선/옥포공영	
4. 2 (일)			자유관람
4. 3 (월)			휴관
4. 4 (화)	대우자판 외	자판 전체/자판건설/할부금융/캐피탈	
4. 5 (수)	대우자동차 외	관리·연구소·영업·해외·서비스 부문/국민차/ 상용차/쌍용차/기전(델파이)/코람/동명중공업/ 동흥전기/남양금속/신성패카드/델코	
4. 6 (목)			자유관람
4. 7 (금)	대우무역	화학·전자·섬유경공업·물자 부문	
4. 8 (토)	대우전자 외	공장(구미,인천,광주)연구소·서비스 부문/전자부품/ 오리온전기/한국전기초자/한국신용유통/모터/ 캐리어	
4. 9 (일)			자유관람
4. 10 (월)			휴관
4. 11 (화)	대우건설 외	건축·주택·플랜트·엔지니어링 부문/경남기업	
4. 12 (수)	대우통신 외	통신 전체/대우정밀/경남금속	
4. 13 (목)			자유관람
4. 14 (금)	그룹공통	기조실/중앙연수원/고기원/정보시스템/개발/ 동우공영/레저(아도니스)/대우학원/대우재단/ 이수그룹/코래드/피어리스	
4. 15 (토)	대우무역 외	관리·통신·영상·부산공장·마산백화점 부문/신성통상/ 세계물산/대우로지스틱스/대양운수/고려/하이파이브/ 이수그룹/코래드/피어리스	
4. 16 (일)			자유관람

- ※ 자유관람 : 가족사별로 지정된 날짜에 관람을 못한 경우 '자유관람일'에 방문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
- ※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.

## 오시는 길 (약도)

- 지하철 :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와 정독도서관 방향으로 도보(약 7분 소요)
- 버 스 : 버스 이용 종로경찰서 혹은 안국역 하차 후 정독도서관 방향 도보 (약 7분 소요)

\*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